

인권으로 보는 권익한 두 현실

북반구는 삶을 누려가는 공화국의 여성들

오늘 여성해방문제는 심각한 국제적난제로 제기되고있으며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여성들이 정치적차별과 사회적차별등속에서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의 여성들은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북반구는 삶을 누려가고있다. 일찌기 여성들의 사회적해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보신 위대한 김일장군께서는 주체35(1946)년 7월 30일 몸소 작성하신 력사적인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발표하시였다.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표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불평등의 질곡속에서 살아온 조선여성들은 처음으로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갖고 가정과 사회, 나라의 당당한 주인이 되게 되었다. 공장, 농촌, 학교의 대문들이 여성들을 향해 활짝 열렸으며 마음껏 일하고 배우고 노래부를 수 있는 참다운 삶의 활무대가

여성들앞에 펼쳐졌다. 해방된 조선의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갈 역군으로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이 있었기에 전화의 나날 조국회, 리수덕, 조순옥, 신도향과 같은 여성영웅들과 여성혁신자들이 수많은 배출되었다. 여성중시의 새 력사를 펼쳐시고 여성군인들과 군인가족들, 조국의 통성변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여성들,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처럼 돌보아 주는 여성들,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여성들을 영웅으로, 애국자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은덕에 대한 이야기들도 공화국인민은 길이 전해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보람찬 삶을 누려온 이 나라 여성들의 존엄과 영광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계시여 더욱더 빛나고있다. 몸소 어머니날을 제정하도록 해주시고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준비하던 날에는 첫머리에 린이들을 가진 어머니들도 대회에 참가할수 있게 속소에 락아

소를 내오도록 다심한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여성들이 신계 될 신발의 무게까지 몸소 저울에 달아보시고 평양산림에 예기거저리와 함께 애용물소독종이까지 보내주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 사랑, 그 믿음속에 이 땅 그 어느 일터, 그 어디를 가보아도 안해로서, 어머니로서,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는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는 공화국의 여성들이다. 그들중에는 부모없는 30여명의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된 서혜숙고일성과 강선명의 처녀어머니 장정화녀성도 있고 특유영예군인의 일생의 길동무로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김금희녀성과 같은 미더고 미풍의 주인공들도 있다. 어찌 이들을 빼놓겠는가. 여성중주의 화원이 펼쳐진 이 땅에서는 평범한 여성들이 영웅으로, 인민체육인으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박사로서, 온 나라가 다 아는 시대의 전형, 로력혁신자로 되고있다.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

를 빛내인 림정심, 림은심, 방철미선수들과 시대의 전형들이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직로공 리명순, 황해북도인민병원 의사 김명월...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서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가사우에 국사를 놓는 이 땅의 여성들의 훌륭한 정신도덕적품도,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데서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이 나라 여성들의 진모습을 볼수 있다. 여기에 공화국을 방방하였던 유럽의 한 여성문제전문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이 남자와 똑같이 노동의 권리를 향유하고있을뿐 아니라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발전권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여성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서방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환상의 세계가 아닐수 없다.》 진정한 여성중주의 화원에서 존엄높고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공화국여성들처럼 행복한 여성들은 세상에 없다.

사회적평등으로 된 여성천시, 여성학대

여성천시, 여성학대가 하나의 사회적중로로 되어버린 남조선에서 여성들은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존엄은커녕 여성으로 태어난것이 오히려 죄가 되어 불행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다. 외국의 한 언론이 2021년 여성들의 지위보장과 관련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순위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남조선이 제일 마지막자리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사회적평등과 천대를 받고있는 남조선여성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평가이다. 남조선에서 전체 유권자의 반수를 차지하고있는 여성층은 채용, 임금, 사회활동 등에서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고있으며 사회적으로 만연되고있는 각종 범죄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생존을 다루는 취업경쟁에서 여성들은 언제나 뒤자리로 밀려나고있다. 대학졸업증을 쥔 여성들속에서 실업자로 방황하는 대상이 90%를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는 경우에도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으로서 남조선사회의 고질적악폐의 하나인 비정규직제도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있다. 여기에 남조선에서 《여성들의 취직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나돌고 있다. 어떻게 취직한 여성들도 차별대우를 받기는 다름없었다. 한 여성단체가 여성사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승급은 물론 평가와 업무, 배치에서 차별을 받고있다는것이 밝혀졌다고 한다. 혹심한 차별대우속에서 일하다가도 경제체제와 구조조정에 따르는 해고의 대상에서 여성들은 의례히 첫번째 자리에 있다. 직장에서 해고된 여성들의 대다수가 20대, 30대로서 그 주된 리유가 결혼과 임신, 해산때문이다. 이때문에 여성들은 일자리를 메울가와 결혼과 해산을 극력 피하는 등 여성으로서의 초보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여성들은 인권을 마구 짓밟히고 공공장소에서 거리낌없이 성희롱, 성폭행을 당하고있다. 특히 윤석열역적패당의 그릇된 정책으로 하여 남조선에서 여성친시풍조는 더욱 만연되어가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여성우대정책때문에 남성들의 기회가 줄어들고 하면서 남녀갈등, 여성혐오를 더욱 부추기는 반여성정책에 매달리고있다. 남조선의 여성운동단체들과 각종 여성들이 《성별갈등을 조장한 장본인들의 기만적인 속임수》, 《여성들의 삶을 목살하는 정권의 계속되는 반여성행태》, 《(국민의힘)은 여성혐오정당의 오명을 벗어 버리기 힘들것이다.》고 규탄배격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여성들의 인격과 존엄이 무참히 짓밟히고 그로 하여 사회적난문제가 끊임없이 산생되는 현실은 남조선사회야말로 최악의 인권불모지, 여성들의 생지옥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함께 웃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가정

공화국에서 국가방역사업이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한 때부터 인민들의 편의보장을 위해 누구보다 드바른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인민반장들도 있다. 지난 5월 서성구역 경정2동 82인민반에서 살고있는 한영애주님의 집에서 있는 일이다. 깊은 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나가보니 걸림심인민반장이 울러내리는 땀을 훔치며 먹음직스러운 호박을 내미는것이였다. 《이 늙은게 주책없이 한마디 한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수고하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어 그 깊은 밤 인민반장이 호박을 들고 그의 집문을 두드리게 되였는가. 그날 저녁에 주민세대들에 남새를 공급하던 인민반장은 구수한 호박장을 먹으면 좋겠다는 한영애 어머니의 말을 듣게 되였다. 그는 서둘러 남새상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호박은 없었다. 이미 다 판매되었던것이였다. 매일 아침에야 들어오는 판매원의 이야기를 뒤에 남기고 발걸음을 돌리는 인민반장의 눈앞에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날줄 불렀다. 여러곳을 돌아보며 호박을 구했을 때는 밤이 퍼 깊어서였다. 그러나 인민반으로 향할 그

의 발걸음은 나는듯이 가벼웠다. 이렇게 그는 주민들의 요구라면 무슨 일, 어려운 일을 가리지 않았다.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중에는 동대구역 새살림동 49인민반반장 김영희도 있다. 이곳 인민반원들은 김영희 인민반장을 가리켜 남을 도와주지 못하면 안라까와하는 사람, 불같은 인정미를 지닌 사람이라고 정답이 부른다. 지난 5월중순 인민반의 매세대를 빠짐없이 돌면서 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알아본 김영희는 2층 2호에 이르러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였다. 아버지는 출장을 가고 어머니마저 심하게 앓다 보니 집안에는 3살 난 딸을 돌보줄 사람이 없었던것이다. 그는 더 생각할새 없이 이 집의 딸 라연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그에게 약을 먹인 다음 정성껏 간호하면서 벌식도 해주고 제미나는 옛이야기도 들려주며 돌보아주었다. 며칠후 라연이의 어머니가 병을 털고 일어나자 딸을 찾으며 왔다. 그런데 그새 열

독재문답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보충하며 사람들을 자주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지닌 인간으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화국에서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와 함께 사회교육체계를 확립하고는 나라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있다. 공화국에서 사회교육은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청년회관, 과학기술청년, 인민대학습당, 도서관, 박물관 등 각지의 사회교육기관들과 과외교양기지에서 진행하고있다.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보충하며 사람들을 자주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지닌 인간으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화국에서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와 함께 사회교육체계를 확립하고는 나라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있다. 공화국에서 사회교육은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청년회관, 과학기술청년, 인민대학습당, 도서관, 박물관 등 각지의 사회교육기관들과 과외교양기지에서 진행하고있다.

공화국에서 사회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공화국에서는 만경태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개성학생소년궁전 등 전국의 학생소년궁전들과 학생소년회관에서 예능교육, 컴퓨터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하여 새세대들을 지체없이 준비하고 한가지이상의 재능을 갖춘 미래의 역군들로 키워내고있다. 10만여권의 장서능력을 가진 도서관과 컴퓨터실, 수영관, 체육관, 야외수영장, 로라스크레터장, 자동차운전실습

재중동로 김희영선생이 제기한 질문

장들을 갖추고 하루 수천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만경태학생소년궁전에서는 한해에도 수십만명의 학생소년들이 과외교육을 받고있다. 이 궁전에서만도 수많은 과학자후비, 예술인후비, 체육인후비들과 애호가들이 나왔다. 인민대학습당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사회교육기지이다. 전민학습의 대전당 인민대학습당에서는 근 40여년간 연 수천만명에 대한 각

종 열람봉사 및 교육을 진행하고있다. 전민학습의 중심지인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도서관은 1946년에 비하여 수십배로 장성하였다.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유민화정책으로 인제가 얼마 없었던 조선이 오늘날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으로 민족간부양성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고 수백만명의 지식인대군을 가지게 되었으며 전체인민이 배우는 교육의 나라로 세상에 이룩될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신과학기술보급사업, 대규모적인 전자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고있는 과학기술청년과 보다 훌륭하게 꾸려지고있는 전국적의 소년단야영소들과 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과외교양기지는 후대교육사업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는 서둘러 남새상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호박은 없었다. 이미 다 판매되었던것이였다. 매일 아침에야 들어오는 판매원의 이야기를 뒤에 남기고 발걸음을 돌리는 인민반장의 눈앞에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날줄 불렀다. 여러곳을 돌아보며 호박을 구했을 때는 밤이 퍼 깊어서였다. 그러나 인민반으로 향할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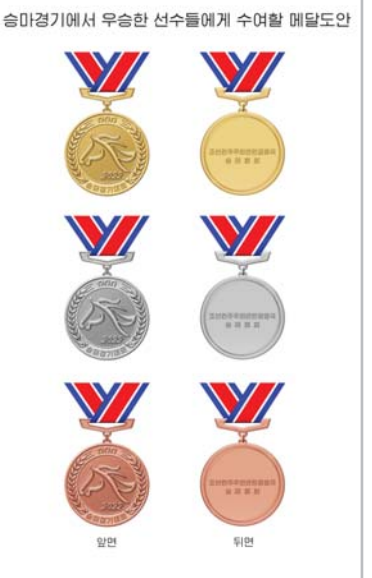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조선산업미술창작사에는 다양하면서도 특색있는 도안들을 창작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한몫 단단히 하는 실력있는 창작자들이 많다. 그들중에는 경공업제품도안과 상업미술도안 등 여러분야의 도안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있는 김진순실장도 있다. 어떤 주제의 산업미술도안이든지 다재다능하고 불라는 창작열을 지닌 그의 손이 가닿기만 하면 명도안으로 완성된다. 하나의 도안을 창작해도 새롭고 특색있는 도안으로 되게 하자! 이것은 그가 도안창작에서 견지하고있는 원칙으로 되고 있다. 연필도안과 승마경기에서 우수한 선수들에게 수여할 메달도안, 향나무장식도안 그리고 유치원어린이가방도안, 소학교학생가방도안, 초급중학교학생가방도안, 대학생가방도안들을 비롯하여 그가 창작한 수많은 명도안들은 그의 남다른 창작적열

과 탐구, 기발한 착상이 낳은 산물이다. 그가 창작한 도안들가운데는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의 생활과 관련한 도안들이 적지 않다. 그는 아이들속에 들어가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하나하나 속사해놓았다가 도안창작에 리용하곤 한다. 몇해전 그가 아이들을 위한 연필도안창작을 할 때였다. 연필도안에 아이들의 중심을 어떻게 반영할것인가 하고 교심을 거듭하던 어느날 그는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면서 눈이 계속 오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것을 듣게 되였다. 그 말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하얀 눈을 도안창작에 반영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착상이 떠올라 푸른색 바탕에 아이들의 꿈을 두들길 실어간다는 뜻에서 등근구름과 눈결정체를 형성하여 연필도안을 창작하였다. 언젠가 길을 가다가 앞서 가던 소학교 학생이 가방을 떨어뜨려보고 한쪽 주머니는 물병을 넣어도 편안하게 리켜주고 다른쪽 주머니는 수첩이나 필기도구를 넣어도 떨어지지 않게 소학교 학생가방도안을 창작한 김진순실장이였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정마크도안을 창작할 때였다. 과업을 받고 욕망만 앞세우다

원수님께서서 공장마크를 감자가 위생모를 쓰고있는것으로 형성하였는데 멋있다고 치해주시였다. 이렇게 그는 산업미술분야에서 일해온 근 20년간 1 200여점의 도안들을 창작하였다. 그중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산업미술도안들은 180여점이나 된다.

우리와 만난 김진순실장은 말하였다. 《우리가 창작한 도안 하나 하나가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가닿고 현실로 펼쳐지는것을 볼 때면 산업미술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뿌듯이 안겨오고 명도안을 창작할 열의가 샘솟곤 합니다.》



김진순실장 (왼쪽)